



코람뉴스 (2021 년 5 월)



**4 월에 이어 5 월에도
코로나바이러스와 환경오염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빌 게이츠 "기후 변화 위기,
코로나 19 보다 더 나쁠 것"**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코로나 19 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고했다고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외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변화로 입게 될 피해를 이해하려면 코로나 19 를 보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고통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정기적으로 겪게 될 일들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인구 10 만 명당 약 14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19 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40 년 안에 전 세계 사망률이 코로나 19 와 비슷한 수치로 증가할 것이며, 2100 년에는 인구 10 만 명당 73 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2060 년까지 기후 변화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며, 2100 년에는 5 배나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동차와 항공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양은 줄어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8%, 470 억 톤의 탄소 배출량만 줄일 것이며, 이런 작은 감소조차도 기후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아닌 코로나 19 봉쇄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노력만큼 전 세계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디넷코리아=이정현 기자)

빌게이츠는 어떤 사람인가 : 미국의 기업인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자선가, 유튜버이며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무려 76.52%를 점유하고 있는 Windows의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이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MS-DOS와 Windows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갔다. 80~90년대에는 IT 업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넘는 세월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인 Windows와 Office를 소유한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세계 제 1의 부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에게 자리를 내주어 세계 갑부 1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부의 제국, 어둠의 군주,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등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했다. 은퇴 후 파격적인 자선사업으로 그간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는 본인 재산의 0.1% 미만을 물려준다는 선언도 화제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 부호들에게 기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설득하는 캠페인은 전 세계에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세상과 공감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를 실천하는 부호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 5월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

윤기해님 (105호, 24일), 진원석님 (512호, 8일),
도연순님 (211호, 25일), 이상훈님 (309호, 25일),
후아니타 말라브 (207호, 2일), 백종인님 (411호,
15일), 유흥식님 (511호, 10일),
윤희선님 (106호, 5일),



위의사진은 408호에 사시는 김송절님이 키우고 있는 돌이랍니다. 돌도 자란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10년 넘게 물만 주었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김송절님택에 방문하여 구경하세요...

부엌 카운터에 놓여있답니다.

W W E L C O M E !

환영합니다.

305호에는 이폴린님이 새로 이사오셨어요. 이폴린님은 CLESE (연장자들의 언어 문제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인증서를 받으신 영어와 한국어의 통역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정정합니다.

지난달에 기재한 312 호로 이사오신 분의 이름을 정정합니다. 호는 민산이며, 성함은 김정교입니다. 1986년에 시카고로 이민을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시카고에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알리기를 주력해온 연극인, 한국화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코람에서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합니다...

아래의 글은 민산 김정교님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의 고전 춘향전에 지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향전 바로 알기 (1) ;



우리 서사문학의 백미인 고전 '춘향전'을 한국 사람이라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모르겠지만... 원작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떨까? 오랜기간 성숙을 거듭해 개작에 개작을 거듭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청춘남녀의 사랑을 발랄하면서도 애절한 흔해빠진 이야기이지만 그것에는 사랑의 만남과 이별, 貞烈(정렬),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의 양반과 천민의 갈등, 신분 상승의 반항정신과 암행어사의 이야기, 관탈민녀 이야기, 염정설화 등 고사와 한시구절이 이리저리 얽혀있어 재미를 더한다. 심지어 춘향이가 남원고을에 살았던 실존인물이니, 절세의 요부였다느니, 최악의 추녀였다느니 하며 말고의 양념을

치기도 한다. 소리꾼들은 완창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 부를수 있는 대목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덧붙이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면서 토막토막 부르니 앞뒤 이치가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순이 나타나 개혁에, 개작이 끊임없이 이어져 춘향전이 창조되었다.

현재도 장르따라 재생산, 각색되고 윤색되고 있다. 사본, 필본, 倡者本(또는 唱者本(창자본) 등의 소설본 90 여종과 창본 수십본의 이본이 넘으며, 제목도 이본에 따라 다르다. 주제와 성격이 다르게 파악될 정도이다.

참고: 貞烈(정렬) 이라함은 정조를 지키는 여자를 뜻하며, 倡者本(또는 唱者本(창자본)은 판소리의 대본, 창하는 사람의 대본입니다. 민산 김정교님께 감사드립니다.



www.hiddenpicturepuzzles.com



숨은그림 찾기 : MASCARA (마스카라), PACIFIER (갓난아이 젖꼭지), SHOES (신발 2 개), RAIN DROP (빗방울), BELL (종) RING (반지), CANDY (사탕), FLAG (깃발), PENNANT (우승기), HOUSE (집), TEPEE (원두막), BOTTLE (병), HEART (사랑표시), MUSHROOM (버섯), LIPSTICK(립스틱), LIPS (입술)

				1	2	3	
1	2	3		8		4	
8		4		7	6	5	
7	6	5					
				1	2	3	
	1	2	3		8	4	
	8		4		7	6	5
	7	6	5				

6	5	7	9	4	1	2	3	8
1	2	3	6	5	8	9	4	7
8	9	4	2	3	7	6	5	1
7	6	5	1	2	3	4	8	9
2	3	1	8	9	4	5	7	6
9	4	8	7	6	5	1	2	3
5	1	2	3	7	6	8	9	4
3	8	9	4	1	2	7	6	5
4	7	6	5	8	9	3	1	2



Spring



W H M Z A L K R S G U B E C H T Q I
 F T U L Y I J B E P Q N O P A S D X
 S J N I B O R H L V M C S U T L E K
 P E D W G X E K J O A Z R M C Q F B
 R C Y Q U S A V N T S I E K H R O L
 O L A M B F D T E U P S W G X T J E
 U N P H Y G Z R L K D H O V C E N R
 T B E J D W P Q I S G X L M F P A U
 V M Z C A I K D H B N U F S E B R T
 D K Y T L X G O R F P E J Q B W O A
 E P G L E B S U A M O C H I C K S N
 B N A R F Y O J T H Z M T D L I P G
 G R K E N R T S N A I L Q W U S R V
 A D O N P H E M B J S T C E S N I F
 K W U F I N L T Q E R M E A Y O N D
 I B S E C K F X T D V J R H P A G Z
 N E D R A G M W K U L G S O R C L E
 H Z M T U L I P V E B A D Y W F X J



BIRDS	CALF	GARDEN	LAMB	SNAIL
BLOSSOM	CATERPILLAR	GRASS	NATURE	SPRING
BUGS	CHICKS	HATCH	NEST	SPROUT
BUNNY	FLOWERS	INSECTS	RABBIT	TULIP
BUTTERFLY	FROG	LADYBUG	ROBIN	WORM





코람의 어머니들께...

이 그레이스님, 모스 행선님, 램프 용희님, 윤기해님,
김영애님, 양양순님, 임순정님, 송기분님, Ms. Juanita Malave,
Ms. Nelly Perez, 이 영조님, 도 연순님, 김 실비아님,
최 종순님, 정 복순님, 차 정자님, 이 폴린님, 김 옥숙님, 김 상주님,
베날스틴 귀임님, 오 성진님, 최 경준님, 윤 영란님, 김 인정님,
양 길자님, 윤 용수님, 김 송절님, 임 병옥님, 백 종인님, 조 효님,
이 진옥님, 송 행임님, 박 린다님, 장 경숙님, 천 영애님, 최 병준님,
유 홍식님, 이 춘재님 !!!!!!!♥♥♥